

# 세계식량가격 3개월 연속 하락...코로나 이전 대비 폭등세

6월 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54.2p로 전월 대비 2.3% ↓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비교, 64% 치솟은 상태 유지

전 세계적인 고물가 흐름 속에 무섭게 치솟았던 세계식량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64%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곡물과 유지류는 다소 하락했으나 육류와 유제품은 오름세를 보였다.

9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57.9포인트(p)) 대비 2.3% 하락한 154.2p를 기록했다. 3월에 최고치(159.7p)를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전년 동월(125.3p) 대비 23.1%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6월(95.4p)과 비교하면 무려 63.5%나 치솟은 상태다.

6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73.5p)보다 4.1% 하락한 166.3p를 기록했다. 밀은 북반구 지역에서 수확을 시작하고, 캐나다·러시

아 등의 생산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적 수입 수요 둔화 등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수확이 진행되고, 미국의 작황이 개선됨에 따라 가격이 떨어졌지만 쌀은 인디카 및 바스마티 쌀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유지류도 전월(229.2p)보다 7.6% 하락한 211.8p를 보였다.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 가격 증가의 영향으로 수입 수요가 억제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 유채씨유는 수요 억제로 인해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떨어졌다.

육류는 전월(122.7p)보다 1.7% 상승한 124.7p로 집계됐다.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가금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공급 장애가 지속돼 가격이 크게 뛰었다.

쇠고기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제한을 해제하면서 따라 가격이 올랐고, 돼지고기는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량이 확대돼 가

격이 소폭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월(143.9p)보다 4.1% 상승한 149.8p를 기록했다. 치즈 가격은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분유 가격은 수입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전세계적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동반 상승했다. 버터는 향후 수개월 간 우유 공급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설탕은 전월(120.4p)보다 2.6% 하락한 117.3p를 기록했는데 경기 하락에 따른 수요가 줄고, 브라질 해알화 약세, 에탄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FAO는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9150만t으로 2021~2022년도 대비 0.6%(1820만t)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2023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 9740만t으로 2021~2022년도 대비 0.1%(170만t) 줄어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자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내 제분·사료·전분당·대두가공 등 관련 업계는 올해 9~10월 중 사용물량까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장 내년 12월까지 계약물량을 확보했다. 따라서 단기적 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제분업체가 밀가루 출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밀가루 가격 상승요인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대두유, 밀가루 및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했다. 농

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해도 상향도 내년 말까지 10%p 상향했다.

추가 조치로 쇠고기·닭고기·주정원료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을 확대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1조 5000억원 규모)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환기자

## “시원한 화장품 모았다” 롯데온 온앤더뷰티



롯데온 온앤더뷰티가 '쿨링 뷰티템'을 제안하는 '온앤더뷰티 위크'를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이달 '온앤더뷰티 위크'의 주제는 '바디&헤어 케어'다.

대표 상품은 쿨링 기능으로 두피와 모발을 진정시켜주는 '르네휘테르 포티샤+토닉시아 샴푸 듀오', '아베다 보테니컬 리페어 리터 샴푸', '록시땅 베베나 바디케어 세트' 등이 있고 해당 상품 구매 시 추가로 정품을 증정한다.

온앤더뷰티는 올 여름 신상품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신규 입점 브랜드도 소개한다. 11일부터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프렐 앤 셋 글로우 미스트'와 '키엘 수퍼 아이크림' 등의 신상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또 프랑스 비건 프래그런스 브랜드인 '까리에르 프레르'가 새롭게 입점해 디퓨저, 캔들 등을 비롯한 약 50여개 상품을 판매한다.

온앤더뷰티는 올해 처음으로 LVMH그룹과 손잡고 '뷰티 에센셜' 행사도 진행한다. 켈랑, 베네프트, 메이크업오버 등이 참여해 여름 인기 상품을 단독 구성 세트로 판매하고 관련 상품 구매 시 최대 9%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엘포인트 추가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슬비기자

## 뽀뽀한 날씨에 필수...가전업계 '제습기' 수요 잠기 열전



폭염과 장마 번갈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주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가 예고됐다. 높은 습도의 날씨에 이어지면서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이에 가전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와 온라인 채널만, 할인 프로모션 등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 수요 잠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제습공기청정기 판매량은

폭염·장마 번갈아 기승 부리자 제습기 수요 ↑

전년비 약 30% 증가했다. 연일 이어지는 덥고 습한 날씨에 제습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게 청호나이스 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이번달 한달 간 제습공기청정기 '렌탈로 할인 프로모션'을 내놨다. 행사대상제품은 '제습공기청정기 AD150', '제습공기청정기 릴리' 2종으로 5년 의무약정의 경우 월 6000원, 3년 의무약정의 경우 월 3000원을 할인해준다.

제습공기청정기는 제습과 공기청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투인원 제품이다. 배수방식은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호스를 통해 바로 배출되는 자연배수 또는 물통 중 선택할 수 있다.

제습공기청정기 AD150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하루 17.80의 제습용량 제품으로 넓은 공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제습공기청정기 릴리는 하루 11.50의 제습용량과 제습면적 49.6㎡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다.

신일전자도 장마철을 겨냥해 블로그·인스타그램 제습기 체험단을 운영하며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체험 대상은 '170 제습기'다.

이 제품은 1일 제습용량이 170이며, 40 대용량 물통까지 갖춰 다양한 공간에 사용하기 좋다. 풍량은 강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자동·연속 제습 기능을 제공해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습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리폼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줄 가정용 제습기 120 신제품을 내놨다. 이 제품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컴팩트한 사이즈, 스마트한 제습 제어 시스템이 특징이다.

▲빨래감 수분을 빠르게 건조하는 의류 건조 모드 ▲적정 습도 55%를 유지하는 자동 제습 모드 ▲개인에 따라 풍량, 시간, 습도를 설정할 수 있는 일반 제습 모드 ▲송풍 모드 총 4가지 제습 모드 중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센서를 통해 주변 습도를 감지할 수 있어 사용자가 설정해둔 습도에 맞춰 스스로 작동한다. 2.6ℓ 대용량 분리형 물통과 함께 배수튜브 설치도 가능해 배수도 편리하다. 최이슬기자

## ‘폭염·열대야’ 냉감제품 전성시대

쿨링 신소재 활용, 기능성도 강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냉감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신소재를 활용한 이불을 비롯해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기능성 기저귀, 스카프까지 냉감제품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숙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성 베개와 침구 판매율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업체별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타면서 제품군 확대 등 시장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브자리 '초냉감 아쑤침구'는 무더운 여름 밤 숙면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침구에 냉감 소재를 적용했다. 이 소재는 피부와 닿으면 체온을 빠르게 흡수해 즉각적인 시원함을 느끼게 해준다. 초냉감 패드, 경추 베개, 반달형 바디베개, 냉감 블랭킷 등 제품도 다양하다.

소바노의 '에어쿨 베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소바노의 기술적 특징인 PE계열의 신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직조 구조로 제작돼 숙면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내장재를 씻어낼 수 있는 직조 구조로 돼 있어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프레미늄은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에어스윙 쿨플랜티'를 출시했다. 에어스윙 쿨플랜티



티는 기존 프리미엄 기저귀의 부드러운 특징은 살리면서 기존 자사 기저귀 대비 2배 증가한 접촉냉감성으로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다. 기저귀 두께는 줄이고 더 많은 소변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흡수력을 높였다. 깨끗한나라 기저귀 '보습이 오가니크 씬머'는 안케버에 자연유래 성분을 적용해 연약한 아기 피부를 생각한 '오가니크' 라인업에 무더운 여름철을 겨냥한 기술을 적용한 시즌 제품이다.

기존 제품에 비해 냉감접촉지수(열 전도성)를 2배 이상 높여 빠르게 열감을 분산시키는 걸커버 소재를 사용해 무더운 여름에 최적화된 기저귀다. 독자적인 신기술 '파워링크어™'를 적용해 더 얇아지고 강력한 흡수력으로 여름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냉감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업체들은 다양한 냉감제품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

## 집값 부담에 대출도 막혀서...소형아파트 청약 인기 3배 꺾중

상반기 소형 1순위 청약 경쟁률 27.3대1...작년 9.6대 1

분양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2인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소형 인기의 원인이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미만)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7.29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경쟁률인 9.55대 1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 전용면적 60㎡미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쓰여진 1순위 청약 통장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2% 증가했다.

매매 거래량도 전체 과반수를 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형 아파트는 전체 거래량(15만 7,986건)의 52.4%인 총 8만 2764건이 거래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소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2인 가구수는 2017년 1246만 131가구에서 2022년 6월 1537만 3,533가구로 5년새 23%가 증가했다.

비중도 늘어났다. 2017년 58%이던 1~2인 가구 비중은 2022년 6월 65%까지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및 가구 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수의 약 76%(약 1732만 가구)가 1~2인 가구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의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DSR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발걸음 하고 있다"며 "계다가 최근에는 임대사업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까지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올 하반기에 공급하는 소형 아파트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에 짓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퀘어'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은 12일 진행된다. 지하 6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면적 35~84㎡, 총 123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5~59㎡, 6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두산건설은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짓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21가구 규모이며 78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희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희스타힐스 더 도화'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6층, 2개 동, 전용면적 59㎡, 총 144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오유나기자